

### 주한 교황청대사 총무원 방문, 자승스님 '세계종교지도자포럼' 협조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오스발도 파달라 주한교황청 대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자승스님은 "조계종이 오는 2013년 개최하는 세계종교지도자포럼에 로마 교황청과 주한교황청 대사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교회 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와 함께 예방한 오스발도 주한교황청 대사는 초청해줘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 뒤 "가톨릭과 불교가 이 세상이 평화롭고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오는 5월 방한하는 교황청 종교간대



화평의회 의장 피에르 토랑 추기경과 함께 다시 찾아뵙고 종교화합을 논의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스님과 주한교황청 대사는 선물을 교환한 뒤 사찰음식으로 공양을 함께 하며 환담을 이어갔다.

### 단체소개

국제포교사회 [www.idia.or.kr](http://www.idia.or.kr)

###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아름다운 발걸음

국제포교사회는 1998년 창립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포교단체로서,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담당할 국제포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인력 확보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기초불교영어과정을 년간 4회에 걸쳐 운영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문 자타카(Jataka)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연등축제일에 외국인들을 위한 연등 만들기 대회를 주관하고, 이주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City Tour 행사와, 친목과 화합을 위한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체육대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이주민 지원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또한, 매월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 순차통역 영어법회를 열고 있으며, 회원들 중 다수가 조계사, 봉은사 등 소속 사찰이나 템플스테이센터 등에서 외국인들에게 불교문화를 설명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포교사회는 종단의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과 연계하고 국제선센터와 협력, 활동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국내 거주 주한 외교관, 외국기업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문화체험 및 영어법회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Temple Stay 프로그램 개발, 통역지원, 불교서적 번역, 어린이 영어법회 등 보다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인터넷 환경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통합 Internet Portal 구축 사업도 계획 중에 있다. 국제포교사회 02-722-2206



## 인류 최상의 우주적인 종교



국제포교사회 회장 배광식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유익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물질문명의 발달은 생활의 편의성은 증진시켜주지만, 올바른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예로 원자력은 전기 에너지라는 편의성을 제공하여 주기도 하지만, 조절이 불가능할 때나 악의적으로 이용될 때는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정도의 견장을 수 없는 재앙이 되기도 한다.

과학의 실용성이 인류의 유익하고 행복한 생활에 기여하도록 하는 가치판단의 눈 역할을 하는 것은 철학과 종교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종교는 으뜸 되는 가르침으로 보편적이어야 하고, 화합과 공생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인류를 안심(安心)케 하여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본래의 역할이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편협하고 배타적인 종교의 아집으로 인해 인류의 고통을 배가시킨 경우도 허다하였다. 우매한 신자를 양산하고, 자기세력을 불리기 위해서는

도덕과 법에 어긋나는 짓도 서슴지 않는 종교는 더 이상 종교로서의 가치를 잃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1939년 "과학과 종교"에 관한 담화에서 "미래의 종교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종교가 될 것이다. 그것은 인격적인 신을 초월하고, 독단적인 신학을 떠나, 자연과 정신(영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의미 있고 조화로운 통일체로서, 자연과 정신(영)의 모든 것을 두루 경험한 데서 우러나오는 경건하고 엄정한 통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의 해답은 불교이다."라고 설파한 바 있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Well-being)이 현재 갖추어지고, 이것이 지속되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릉엄삼매(Surangama samadhi: 건상 健相, 건행정 健行定)로 표현하며, 수행과 전법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교환교수로 있던 1994년 여름, 자동차로 14시간 정도 걸려 북가주 휴양도시인 카멜의 삼보사 청화큰스님 법회에 참석하였다. 삼보사는 한국산을 연상케 하는 소나무 우거진 나지막한 산 자락에 의지하고 앞에는 냇물이 흐르고 있

었다. 덕산 이한상 거사께서 1973년 미국 최초의 한국사찰로 창건하고, 구산, 운허 큰스님 등이 개원식에 참석한 이 절은 덕산 거사가 세연을 다한 후, 부인 상품화 보살(후의 흥립 비구니)께서 맡아 운영하다가 1993년 말에 청화큰스님께서 시주 받아, 10여분의 대중들과 동안거를 한 철 나고 하안거를 나시는 중이었다. 그 즈음 미국 대형서점에서 한국 관련 불교서적은 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고, 포틀랜드의 유일한 한국사찰인 보광사에서는 주말이면 20여 명의 교민들이 모여 법회를 보았으나 그나마 젊은이는 거의 없었다. 또 2008년에는 캐나다 밴쿠버의 서광사에 들렀는데, 넓은 땅에 한국 건축양식의 법당에서는 10분 내외의 교민

들만이 쉼야정진을 하고 있었다.

한국불교가 구미에 진출한 역사가 일천하지만 미주에 80여개, 세계적으로 140여개의 사찰은 매우 적은 숫자이다. 그나마 이들 간에 혹은 한국과의 네트워크가 미약하여, 수행과 전법의 빛을 내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제 종단 차원에서 해외교구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네트워크 형성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번역 사업을 활발히 하며, 청소년 교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하여 해외 한국사찰들과 활발히 교류한다면, 교민 2, 3세는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전법의 물꼬가 트이고 행복한 세상 건설을 앞당길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http://www.buddhism.or.kr) (한글) [www.koreanbuddhism.net](http://www.koreanbuddhism.net) (영문)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한 국제불교 소식지는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불교에 관련된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담겠습니다. (※ 지면에 소개되는 기사에는 불교신문의 기사를 편집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3번지 전법회관 3층 B동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담당\_ 선정화 간사)  
전화 070-7769-8985 전송 02-733-8985 이메일 [kbin8985@naver.com](mailto:kbin8985@naver.com) 홈페이지 [www.dourim.net/kbin](http://www.dourim.net/kbin)



###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설 '국제불교학교' 개원

국제불교학교(학장 무진스님)는 외국 현지에서의 국제포교와 국내에서 외국인 대상 포교 및 국내외 국제행사 통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템플스테이 지도 등을 수행하는 영어활용 능력이 우수한 비구니 스님을 양성하는 종단 직영의 2년제 특수교육기관이다.

국제불교학교 학장 자우스님은 "학인들은 '신심' 그 자체였다. 출가한 지 10년이 넘어서면서 각자가 출가자로서의 발전과 회향을 고민하면서 대중들에게 회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교에 뜻을 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소개했다.

국제불교학교의 목표는 '영어로 법회와 법문이 가능한 수준을 만들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전법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학인들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운영사찰인 화운사주지 도현스님은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감당한다. 그리고 외국인 학장 스님과 원어민 강사의 지도하에 모든 생활과 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한다.

첫 입학생은 9명. 총 5학기로 운영된다. 마지막 5학기에는 6주간의 해외 연수를 통해 2년간 공부한 실력을 점검한다. 미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사찰 운영과 포교, 법회 및 법문, 타종교 운영 현황과 방법 등을 각종 인터뷰를 통해 점검한다. 졸업생에게는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종단 국제행사의 진행 및 통역, 템플스테이 지도 등도 담당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외포교사, 해외사찰 인력, 템플스테이 지도자, 각종 행사 통역 및 진행, 국제컨퍼런스 전문인력 등 진로 또한 무궁무진하다는 게 교육원의 설명이다.

화운사\_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31번지  
전화 031-335-2576



### 외국인 행자교육원 화계사에 개원 기초교육 습의 및 한글 체계적으로 교육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3월 17일 서울 화계사에 종단으로 출가한 외국인 발심 행자의 기본교육과 한국어 등을 전담할 "외국인행자교육원"을 개원했다.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을 외국인행자 교육원장으로, 혜강스님을 원감으로 위촉하였다.

화계사 국제선원 2층에 위치한 외국인행자교육원은 조계종으로 출가한 외국인행자들이 한국불교를 이해하고 조계종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종단구성원

## 조계종,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참사에 대한 애도문 발표 후 '긴급구호활동팀 선발대' 급파



조계종 총무원원은 동일본 대지진 참사와 관련한 애도문 발표에 이어 일본지진해일 재난구호 대책위원회(위원장 혜경스님)를 구성하고 3월 15일에 '긴급구호활동팀 선발대'를 일본 지진 및 쓰나미 피해 현지로 급파했다. 선발대는 사회국장 묘장스님을 팀장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부 국제팀 등이 참여했다. 19일까지 피해지역을 찾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물품과 의료 지원, 인력투입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혜경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은 "이번 일본 지진과 해일 피해를 지켜보면서 현대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한낱 힘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일본인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무사히 귀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종무원, 조계사 신도들이 이웃나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조계사 마당에 마련된 일본 재난 구호 모금함에 줄을 지어 모금에 동참하였다.

###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 선발대 민간단체 최초로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진입, 구호활동 펼쳐

3월 18일 오전. 일본 동부 지진·쓰나미 피해지역에 급파된 조계종긴급재난구호봉사대 선발대 5명이 지진 최대 피해지역인 센다이시에서의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했다. 가장 피해가 큰 다카사고와 나가노 지역의 긴급대피소를 찾아가 선발대는 지진과 쓰나미가 휩쓸고 간 흔적이 역력한 마을의 모습에 한동안 온 몸이 굳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식료품과 방한용품...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방사능과 지진에 대한 공포로 인해 조달이 어려운 현지 상황에 필요한 만큼의 구호물품을 준비할 수 없었던 선발대원들은 처절한 현지상황을 목격하고 휴대한 모든 식료품과 방한물품을 망설이지 않고 긴급대피소의 이재민들에게 모두 전달하는 것으로 긴급구호 활동에 돌입하였다. 현지 센다이시 관계자는 "피해지역까지 진입하여 현지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앞으로의 구호활동 계획 논의와 함께 구호연계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단체는 조계종긴급재난구호대가 처음"이라며



"우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선발대 팀장 묘장스님은 "수도도 전기도 물류이동도 끊긴 이곳은 매우 처참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미미할 수 있지만, 이곳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많은 현지조사와 활동을 통해 긴급재난구호봉사대 본진의 정식 투입이 가능해지는 순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고 전했다.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어 학습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현재 대만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스님 3명이 입교한 상태이다.

모든 교육은 한국어로 진행되고,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과 6개월 이상 수학한 행자들에 한하여 수료증이 교부되며, 수료하지 못한 외국인행자는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에 입교할 수 없다. 입교를 통해 외국인행자들은 교육과 비자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행자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암스님(화계사 주지)은 "돌아가신 숭산스님의 국제포교에 대한 원력을 이어 화계사에 외국인행자교육원을 개원하게 되

기쁘다"며 "외국인 행자들이 여기서 한국불교의 전통과 습의를 익히고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외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응스님은 "그동안 체계와 제도의 미흡으로 매년 30여 명의 외국인이 출가하지만 사미니계를 수지하는 숫자는 절반에 그쳤다"며 "외국인행자교육원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종교와 생활상은 물론 한국불교와 사찰생활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해 부처님 법을 잘 펼치는 훌륭한 스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했다.

화계사 국제선원\_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7번지  
전화 02-900-4326



으로서의 안정적인 정착, 수계 이후 각급 기본교육기관에서의 원활한 교육 이수를 위해 월차별 행자교육을 진행함과 함께

# 네팔 공생청소년센터 개관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은 3월 7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네팔을 방문해 해발 1600m인 카트만두 변두리 지역의 공생청소년센터 개관식과 룸비니 스리 아다사의 '송명례 초등학교' 준공식 및 고산지대인 다링 지역 스리시데솔 공립학교 현지 방문 등의 행사를 차례로 갖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네팔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85년. 성지순례 도중 네팔에 머무르면서 부처가 태어난 룸비니동산 등을 돌아본 스님은 폐허가 된 불교 성지에 가슴 아파하면서 언젠가 이곳에 반드시 보은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원(願)을 세웠다. 스님은 2003년 지구촌공생회를 발족해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생명의 우물' 사업, 학교 설립 및 자립농장 사업 등을 통해 현지인들을 위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해왔다. 2008년엔 카트만두에 지구촌공생회 지부를 개설, 스님이 직접 네팔을 방문해 봉사 대상과 사업 내용을 챙겼다. 그 첫 결실로 2010년 8월 다링 지역 날람마을에 스리시데솔 공립학교를 설립하고 초중고교 및 전문대학을 열어 현재 712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이번 네팔 방문에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2억2000만원을 보시한 송명례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공생청소년센터 개관식

씨(72·여)가 동행해 의의를 더했다.

8일 개관한 공생청소년센터는 여건이 열악한 카트만두 변두리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해 4층 건물을 임차하였다. 재봉, 컴퓨터, 도서관과 공부방 그리고 4층에는 한국어 교실이 들어섰다. 재봉 교실은 맞춤형의 비중이 많은 네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재봉 기술을 가르쳐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현지 교사 암릿 버즈러처야(42)씨는 "한국 현지방송이 이곳에 방영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취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네팔과 한국의 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인근 보육원과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및 방과후 교실로도 운영된다.

9일에는 룸비니에서 '스리아다사 송명례 초등학교' 준공식을 개최했다. 기존 교실 4칸을 개보수하고 6칸을 신축해 학교를 새롭게 변모시켰다.

이날 월주스님은 축사에서 "훌륭히 완공된 학교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제 관리는 운영위원회와 교사, 학부모의 몫이므로 자녀들이 오랫동안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의식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월주 스님은 룸비니동산 인근 국제사원구역 단지의 대성 석가사 건립 현장을 둘러보고 주지인 법신 스님 등 한국에서 온 스님들을 격려했다. 지구촌공생회는 매달 1만원씩 후원금을 내는 정기 후원회원이 5300여 명 있다.

지구촌공생회 홍보팀 박재영 간사

전화 02-3409-0303 www.goodhands.or.kr

# 해외 국가 지원할 '월드머시코리아' 출범

## 미얀마 등 교육·구호 사업 진행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교육·구호 사업을 지원하게 될 단체가 출범했다. 월드머시코리아(WORLD MERCY KOREA, 대표이사 현진스님·서울 여의도포교원장, 사진)는 3월 7일 외교통상부 등록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월드머시코리아에는 서울 여의도 포교원장 현진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 경주 기림사 주지 종광스님, 칠곡 죽림정사 주지 정우스님, 양양 낙산사 법주정념스님을 비롯해 출세가 이사 30여 명이 동참했다.

3월 18일 여의도포교원에서 만난 대표이사 현진스님은 "지구촌은 한 가족이라는 인식아래 국제 구호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뜻 있는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힘을 모으게 됐다"면서 "앞으로 교육사업과 인재양성을 통해 제3세계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장기적으로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인도, 네팔, 스리랑카, 몽

골 등을 대상으로 구호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국가의 정서와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꼭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현지인 가운데 한국에 유학 온 대학생과 현지 대학생을 네트워크 구성에 참여시키고 장학금도 지급 할 계획이다. 우선 미얀마를 '시범 사업 국가'로 선정해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하면서 연내에 2곳의 초등학교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진스님은 "내외국을 총괄하는 성격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서 "향후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한편 UN과도 구호사업을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회성 사업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다"면서 "불교는 물론 국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 02-784-9136

# 더프라이스, 드림프로젝트 스타트

## 차별화된 국제개발구호프로그램 선보여 첫 연보 발간, 투명한 운영에 신뢰 얻어

지난 2008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을 시작한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이스'가 올해 첫 연간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투명한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미얀마와 동티모르 등에서 교육, 보건위생, 지역 개발 사업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온 결과물이다.

더프라이스는 신뢰와 존중, 호혜라는 핵심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지구촌 곳곳,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에 아름다운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연보의 발간으로 후원인들의 신뢰 확보와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더프라이스의 차별화되고 다양한 국제개발프로그램들을 들여다본다.

### 한국전래동화책, 미얀마에 보급

지난 해 부터 진행된 더프라이스의 중점 사업인 한국전래동화책 제작 프로젝트는 한국적 정서가 담겨져 있는 전래동화의 밑그림을 한국 청소년들이 직접 색칠하고 글은 미얀마어로 번역하여 미얀마 청소년들에게 선물함으로써 미얀마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도 이와같은 뜻깊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직접 색칠을 하는 과정을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한국적 정서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 속의 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국가적 아젠다와도 부합되는 이 프로젝트는 지구촌 곳곳에 우리의 것을 알리는 데 일조할 것이다. 또한 초·중등학생 들을 대상으로 기부체험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될 동화책 색칠작업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원봉사인증센터인 더프라이스에서 자원봉사점수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제작된 동화책은 크레파스 등과 함께 키트로 제작 판매될 예정이며 키트는 더프라이스의 약속을 의미하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미얀마의 아이들에게 전해지게 된다.

한편 더프라이스는 이 프로젝트를 향후 전 세계 최빈민국 20여 곳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생명의 길, 워터로드 대장정 첫발

더프라이스가 한국의 국제개발구호단체로서는 처음으로 21세기 첫 독립국가 동티모르의 메마른 땅에 희망의 물길을 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미지의 땅 아수마노에 생명의 물길, 워터로드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 더프라이스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철저한 현지조사 과정을 거쳐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리기사 주의 아수마노 마을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아수마노는 인도네시아 강제 점령기에 독립군의 은신처로 사용될 만큼 알려지지 않은 땅으로 현재 마을 200여 가구들은 식수를 구하기 위해 가파른 산길을 한 시간 가량 걸어 올라가야 한다. 이에 더프라이스는 아수마노 마을 주민들의 생명줄인 물길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 첫발을 내딛는 더프라이스의 워터로드 대장정, 메마른 아수마노의 대지를 물빛 희망으로 적실 아름다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의 나눔의 손길이 함께 한다면 더프라이스가 약속을 지켜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더프라이스 행복나눔팀 진호경 팀장

전화 02-735-3119

# 라스베가스에 학림사 오등선원 미주분원 개원



충남 공주 소재 학림사 오등선원 (회주 한암 대원스님)이 학림사 오등선원 라스베가스 포교당을 개설하였다. 학림사 오등선원은 2010년 12월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는 이 대덕화불자님에게 오등선원 포교사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발족하게 된 것이다.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 대원스님은 “대덕화 보살이 1998년도에 공부 점검 차 학림사에 방문하였던 것이 인연이 되었다.” 며 “그 후 지속적으로 수행지도를 받으며 2000년도에는 라스베가스 소재 송산스님 계열 사찰인 대명선원에서 초청법회도 여는 등 많은 수행과 포교에 큰 원력을 보여 왔다.”고 설명했다. 한암 대원스님은

“한국에서도 재가자들이 불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미국에서도 재가자들의 힘으로 불사를 했을 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퇴전의 원력보살인 이 대덕화 포교사는 부처님의 원력으로 불모지인 라스베가스에서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성원을 보냈다.

이번에 학림사 오등선원 미주분원 포교사로 임명받은 이대덕화불자님은 오래전부터 불법홍포를 위해 불자들에게 법문 테이프 등 자료 배포와 생활 상담을 해오고 있었다면서, “꾸준히 노력하여 언젠가는 미국 땅에도 한국의 정통 선사들이 선법문을 널리 펼 수 있도록 길 닦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화 702-812-7968

## 남가주 정혜사, 연례 수계식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 자리잡은 정혜사가 출가재일을 맞이하여 2월 13일 수계식을 봉행하였다. 정혜사 수계식은 매년 출가재일에 즈음하여 봉행하는 연례행사로, 부처님의 발심과 출가를 떠올리며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이다.



주지 석타스님에 따르면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수계식인 만큼 새로운 불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불자들도 수계식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밝히며, “계율은 나와 남이 함께 선업을 쌓아 고통을 극복하고 부처님 세계로 가기 위한 행동의 가치 기준이며 평화와 행복 그리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수행덕목이므로 이미 수계를 받은 불자들도 새롭게 계를 받음으로써 부처님의 제자로 새롭게 태어나 보다 진실 된 불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수계식 행사는 인근 타 국가 사찰의 스님들이 계사로 동참하여 눈길을 끌었다. 오렌지 카운티의 베트남 사찰 스님, 스리랑카 스님, 티벳 스님 등이 수계식 집전에 참여하여 이날 행사를 범불교적 수계식으로 고양시켰다. 정혜사 주지 석타스님은 “정혜사는 평소에도 다양한 전통의 불교사찰들과 교류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며 “불교계가 대동단결하여 함께 이 나라에서 포교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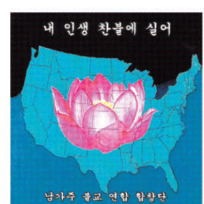
www.junghyesa.com

## “내 인생 찬불에 실어” 남가주 불교사원연합회 합창단, 찬불가 CD 발매

남가주 불교 사원연합회 합창단이 2월 27일 찬불가 CD “내 인생 찬불에 실어”를 발매하였다. 이 CD는 합창단 창립부터 활동해 온 김영균 지휘자가 작곡한 14곡의 찬불가를 한 장의 CD에 담았다.

남가주 불교사원연합회 합창단은 미주 유일의 한국불교 연합 합창단으로서, LA 및 오렌지 카운티 일원의 한국사찰 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6년 LA 관음사 합창단으로 출발하여 2000년대 초반 연합 합창단으로서의 위상을 새로이 하고, 십여 년이 넘게 각종 행사와 불자들의 경조사에서 음성공양을 해 오고 있다.

서니 박 회장은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은 아니지만 불자들의 기대에 부



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조화시켜 최상의 화음을 끌어내려다 보니 많이 힘들었지만 음악을 통해 불교를 포교하고 많은 불자들에게 즐거움을 드린다면 그 이상 큰 보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총 2,000장이 발매된 “내 인생 찬불에 실어”는 많은 불자들의 호평 속에 미 전역으로 보급되고 있다.

구입문의 213-407-2135

## 뉴욕 정명사, 불자들의 건강 위한 요가 클래스

뉴욕 정명사 요가 교실이 9개월이 넘게 순항중이다. 이 클래스는 2010년 도미, 뉴욕 정명사에서 포교하고 있는 도신스님이 불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개설한 프로그램으로 2010년 6월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에 진행되고 있다. 도신스님은 인도와 호주 등지에서 세계적 요가 수행자로부터 직접 수련 받은 경험을 토대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요정기법회에 앞서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되는 요가 클래스는 태양 예배 자세로 시작하여 서있기 자세와 앉은 자세 등 다양한 자세를 포함하고 있는데, 참가자 신현림님은 “뉴욕의 여러 요가교실을 다녀보았지만 도신스님의 요가 교실은 유연성뿐만 아니라 근력 및 호흡운동도 되는, 다목적 요가는 처음”이라며 흠족해 했다.

신현림님에 따르면 만성 허리디스크로 무릎을 편 상태로 손이 바닥에 닿지 않던

참가자가 몇 개월 후 유연하게 달라진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고, 팔에 근력이 생겨 활기찬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는 참가자도 있다고 전했다. 도신 스님에 따르면 요가는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수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가자들이 끈기를 갖고 동참하여 좋은 효과를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화 718-358-9645



## 2011 해외사찰 국제포교프로그램 심사결과 발표

종단 사회부에서 주관하는 2011 해외사찰 국제포교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결과가 3월 15일 발표되었다.

해외사찰 국제포교 프로그램은 전세계에 산재한 140여 개 해외사찰들의 현지 포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하고 있는데, 각 사찰들이 제시한 포교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미주지역 등 15개의 해외사찰에서 공모에 참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8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심사위원으로는 사회부장 혜경스님, 국제교류위원 진월스님, 사회국장 묘장스님 그리고 홍민석 국제팀장이 참여하였으며, 종단등록 사찰, 연합행사, 현지인과 청소년 대상 및 자료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비중을 두어 심사하였다.

2011년 해외사찰 국제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미국 텍사스 보현사 한인유학생을 위한 불교 워크숍
- 미국 뉴욕사원연합회 뉴욕지역 봉축 연합행사 및 퍼레이드
- 미국 뉴욕 불광선원 뉴욕 현지인 대상 참선 프로그램
- 미국 버지니아 보림사 미주지역 불교총람 및 불교인 업소록
- 미국 뉴욕 청아사 전통 성년식 시연 및 사찰음식 시연
- 미국 북가주 승가회 청년대상 템플스테이 및 문화교육
- 뉴질랜드 남극정사 다도를 통한 교민 및 현지인 포교사업
- 호주 정법사 붓다요가를 통한 간화선 보급

## 조지 워싱턴 대학생, 워싱턴 보림사 방문수업

조지 워싱턴 대학(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재학생 40여 명이 2월 27일 워싱턴 보림사 법회에 참관, 현장학습을 가졌다. 이날 보림사를 방문한 대학생들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 종교학과 발라지 헤바(Balaji Hebbat) 교수의 "Eastern Religions"라는 과목의 수강생으로, 현장학습의 일환인 교안에 따라 워싱턴 일대 한국사찰 가운데 대표적인 보림사의 법회에 참가하여, 현장에서 펼쳐지는 한국불교의 모습을 직접 경험한 후 느낀 바를 에세이로 작성하여 제출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보림사에서는 이날 대중법회를 마친 후 법회를 이끌었던 해인스님과 함께 질의 응

답시간을 가졌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교를 이날 처음 경험한 관계로 일부 학생들은 법당에서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거나 다리를 뻗고 앉아 있는 등 사찰 예법에 숙달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나, 질의 응답시간에는 불단에 과일을 놓는 까닭이나 천장에 연등을 걸어놓은 까닭 등에 관해 물으며 호기심을 나타냈다. 이날 많은 질문을 받아 준 해인스님은 "학생들이 불교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반기웠다"며 "현지인 포교를 위한 좋은 기회인 만큼 앞으로도 대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전화 703-352-0380



## 베트남 대한정사, 폭넓은 활동 지역에 뿌리내려

호치민시는 베트남 메콩강 하구 삼각주에 있으며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대한정사는 이곳 유일의 조계종 사찰답게 교민 사회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을 향한 봉사활동 영역도 넓다.

매년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를 개최, 가난한 학생들에게 수업료 등을 지원해 왔고, 특히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집도 지어주고 다리를 포장해 주기도 했다. 이 같은 폭넓은 활동은 대한정사가 베트남 특히 호치민에서 이곳 사람들과 더불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주지이신 정묵스님께서는 출가제일 법문에서 성철스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불자들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발원하며 하루에 세 번 기도하면 기도하는 이도 소원하는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전화 84-095-806-3311

## 하와이 정법사, 강건기 교수 초청법회

하와이 정법사(주지 대원스님)는 강건기 교수를 법사로 초청법회를 개최하였다.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 동안 정기법회를 대신하여 열린 이번 초청법회는 2010년 불일출판사에서 발간된 『보조국사 지눌의 생애와 사상』을 교재로 진행되었다.

전북대 철학과 명예교수로 재임 중인 강건기 교수는 오래전 하와이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생활하며 하와이 소재 정법사와 맺은 인연을 이번 기회에 회향하게 되었다.

전화 808-596-8058



## 호주 시드니 멜번불교모임

### 1. 멜번의 연혁

멜번(Melbourne)은 호주에서 시드니 다음으로 큰 도시이다. 인구가 약 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Victoria 주의 주도(州都)이며, 주의회(州議會)가 있는 도시로 호주에서 다소 보수적인 성향(백호주의)을 띠고 있다. 요즘에는 아시아계 이민이 많이 유입되면서 다소 그런 경향이 수그러들고 다문화화를 용인하는 분위기 가운데, 새로운 고층 건물들이 증가하고 도시가 활기찬 분위기로 바뀌면서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멜번의 교민사회

멜번에는 한국교민이 유학생과 주재원 포함, 약 2만 5천 명 정도며, Box hill, Camegie, Glen Waverly 지역에 많이 모여 살고 있다. 주 업종으로 여행사, 건축업, 기술직, 식당, 도소매업, 기타 자유업에 종사하고 있다. 기독교는 37개 교회가 멜번시에 산재해 있고, 티베트, 중국, 스리랑카 등 다른 불교국가에서는 4-5개 정도의 사찰이 있는 반면에 현재 한국 불자들이 수행정진을 할 수 있는 한국사찰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 3. 멜번의 불교현황

2006년 10월부터 뜻있는 신도들이 모여 '멜번불교모임'을 결성, 신도 집을 차

레대로 돌면서 불교공부와 수행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교민신문에 불교 수행활동 상황을 광고하여 숨어있는 불교신도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했다. 2007년 9월 유정 법사님의 동참으로 Doncaster 에 위치한 법사님 집을 이용하여 법회를 지속해오다, 신도수가 늘어나면서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Camegie기차역과 가까운 Daring Road 71·7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스리랑카 사찰의 협조를 얻어, 2009년 3월부터 매월 둘째 주 일요일 11시에 법회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재적신도 100여 명으로 서로 간에 화목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불교 수행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멜번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거리의 Kinglake에 한국 송광사에서 불교 교육과 수행을 해 오신, 호주 출신 비구니 지광스님께서 사찰을 건립하여 호주의 현지인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멜번 불교신도모임의 간절한 소망은 다른 나라 불교신도들처럼 한국 사찰을 건립하고 한국스님을 모시고 필요한 시간에 법회와 수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사님을 중심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있다.

**멜번불교 연락처** 6 Diamond Ct Doncaster East Vic 3129 Australia  
전화 (03) 9842 2423 / 유정 법사님  
17 Bunker CR Glen Waverley Vic 3150 Australia  
전화 (03) 8802-8992 / 이기성 회장님  
다음 카페 "멜번 불교모임"

## 미국인 제이미 라이트의 동안거 동참기 - '미역국과 참선'

(여, 28세, 서울의 대학에서 영어강사)

나는 2011년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충남 서산 천장사에서 사찰음식과 참선을 배우기 위해 동안거에 동참하였다. 지난해 10월 이세운(佛子)을 포함한 국제포교사들과 함께 천장사에서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이후, 공양주인 마하심보살님의 미역국에 관한 나머지, 사찰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였다. 천장사에서의 머무름은 나에게 아주 최고의 시간이었으며, 공양주 보살님을 도와 안거를 하고 계신 많은 스님들과 설날에 오

신 불자들에게 음식 공양을 해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천장사의 정경뿐만 아니라 예불과 경전, 참선을 함께 하는 한국불교 공부 참 좋았다. 대략 하루에 2번, 30분씩 좌선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양간에서 공양 준비를 하는 등 마하심보살님을 도우며 보냈다. 어느 날 나는 마파두부를 만들어 스님들께 공양하고 싶었다. 주재료인 마늘, 양파등이 금기재료들이었기에 큰 모험일수 밖에 없었다. 내가 만든 마파두부는



원래의 맛과는 많이 달랐지만 너무도 좋아해서, 그 뒤로 3번을 더 만들었다. 서투른 한국말에도 모든 분들이 차분하게 들어주고 이해심 많게 배려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웠다. 약 15일 간의 생활은 한국어와 사찰음식 그리고 한국불교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오랜 시간을 머무르고 싶다고... 배울게 많은 곳이기..."

(이 글은 이세운 국제포교사와 제이미의 대화 내용을 편집하였음)

6 국제 불교뉴스

NEWS 1 **성스러운 여행 - 불교국가 부탄을 가다** - 더 스타신문, 크리스탈 로우 [2010.08.08]

**부탄, 팀부** - 친구와 내가 부탄의 파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경이로움이 몰려왔다. 신선한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가고 나를 편안하게 했다. 눈 덮인 산봉우리가 지평선 위로 드러나고, 어디서 왔는지 희귀종인 히말라야 그리폰 독수리 일가족이 돌연히 나타나 무상함을 떠올리게 했다.

부탄은 스위스 크기의 불교 왕국으로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산에 있고, 인구는 670,000명이며 대부분 한적한 내륙에 모여 산다. 부탄의 전통 건축물인 종(dzong)과 수많은 절, 탑, 기원 깃발이 구도자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부탄의 국보이자 세계 문화 유적지인 호랑이 둥지라는 이름의 탁상사는 팔로 계곡 900m 높이의 험준한 바위 절벽에 위태로이 걸려져 있다. 수행인들이 모여 인생의 의미를 찾아 정진하는 절이다. 걷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여 3시간 만에 도착한 탁상사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산 언딘가에서 들려오는 폭포 소리는 호랑이굴로 나를 맞이하는 것 같았다. 8세기에 도르제 트롤로로 환생한 성자 파드마삼바비는 자신의 배우자 예세 초갈이 변신한 호랑이를 타고 탁상에 왔는데, 동굴에서 7개월간 참선을 했고 주변 산들을 다니면서 산신들을 불법에 귀의케 했다고 한다.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보물은 그림 같은 푸나가 종 건축물이다. 1637년에 지어진 거대한 요새로 두 강의 합류지에 있

며 보라색 자카란다 나무가 양옆에 줄지어 있는데 부탄의 또 다른 놀라운 건축물이다. 멀리서 보면 중세도시 느낌이 나는데, 안은 티베트식의 법당인 고포로 15m 높이의 석가모니불이 모셔져 있고, 사방 벽화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천장에 그려진 천 불은 이 시대에 출현하실 부처님이라고 한다. 다음에는 푸나 커 동쪽 불당에 가서 우라 약초 대축제를 구경했다. 종교적 축제로 마을 사람들이 화

려한 가면을 쓰고 전통춤과 노래를 하는데, 8세기에 파드마삼바바가 마을을 지나자 나병이 다 치료되었던 것을 기념한다. 그리고 불당 계곡은 부탄의 가장 오래된 절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울창한 나무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야생동물이 많으며 해발 3,200m에 있다.

수도인 팀부의 건물들은 일률적으로 4층 정도의 높이인데 대부분의 집이 액운을 막기 위해 용, 호랑이, 가루다 등을 그려놓았다. 세계화에 맞서 불교적 가치관으로 자국의 유산과 생활방식을 지켜내고 있으며 고기잡이, 사냥, 밀렵을 금지해 모든 생명을 신성시한다. 나는 부탄 여행을 통해 많은 영감을 얻었고 더 겸허해짐을 느꼈다. 부탄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었고 부탄사람들의 단순한 삶과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였으며, 평범한 것 속에 깃든 비범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NEWS 2 **죽음과 내생** - 스리 스리 라비 산카르(인도 명상지도자), 인디아 타임즈 [2011.01.06]

매일 당신이 잠잘 때 자연은 아주 작은 죽음의 느낌을 보여준다. 죽음은 잠과 비슷하다. 잠은 깊은 안식을 준다. 잠은 당신을 치유하고 편안케 하며 다음 날을 생애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해준다. 마찬가지로 죽음은 당신의 영혼을 쉬게 한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과거를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한 몸을 놓아버리고 또 다른 몸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주의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죽어간다.

죽음은 공을 창조한다. 누군가 죽을 때 진공이 갑자기 창조된다. 그리고 진공과 완전히 하나가 된 당신은 자신이 바로 그 진공임을 안다. 당신은 누구인가? 완전한 공이다. 죽음만이 공이 아니라 삶도 공이다. 이것을 깨친 것이 열반이다.

부처님께서도 삶이 공이며 공이 진리이고 형색은 허망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형색 없는 것만이 존재하며 형색을 지배한다. 마음은 형색이 없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이 아니던가? 예를 들어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마음인가 몸인가? 마음이다. 마음이 몸 안에 없다면 몸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형태가 없는 것이 전체 창조 작용을 지켜보고 있다. 당신은 더 큰 형태가 없는 것의 중심이다; 당신이 무엇이라 부르든...

고대시대에 사람들은 묘지에서의 참선이 필수였다. 이것은 평정심, 공하다는 느낌을 들게 했고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방황하지 않는다. 참선할 때 당신이 단지 몸이 아니며 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 깨침이 죽음의 공포를 없애 준다. 몇몇 사람은 침실에 가길 두려워한다. 깨어나지 못할까 봐 무서워한다. 죽음에 대한 지식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당신을 안정되고 강하게 하며 공포의 뿌리를 뽑아낸다. 열역학 제1 법칙은 에너지가 창조되지도 소멸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마음은 에너지이고 그래서 소멸할 수 없다.

왜 사람들은 거친 환경에 태어나기도 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나기도 하는가? 이것은 전의 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당신의 삶이 어땠는지 관계가 없다. 그러나 마지막 생각은 중요하다. 마지막 순간 삶에서 모든 것이 섬광처럼 나타날 것이다. 당신이 언제나 삶에 도움을 주는 일을 했다면 같은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인류가 우정과 자비와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인간의 몸은 귀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몸속에 모든 부정적 인상을 가지고 갈 수도 지워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제가 마지막 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때가 닥쳤을 때 갑자기 새로운 인상을 만들 겨를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 혹은 가장 강했던 인상이 나타날 것이다. 언제나 참선하고 그것이 가장 강한 인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 좋은 인상을 갖기 위해 언제 울지도 모를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지 말라.

NEWS 3 **나란다의 영광스러운 과거가 미래를 통합하다** - 뉴 스트레이츠 타임즈 [2011.02.28]

**인도, 나란다** - 2013년 말 경 보편적 세계관으로 나아 갈 아시아대학이 '아시아의 시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뉴 델리 동쪽 887km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국제적 프로젝트로서 나란다 대학은 참여국에 정치경제적 이익이 아닌 오직 지식과 깨달음을 제공할 것이다. 한때 부처님의 땅이었으며 최고 학문의 전당이었던 나란다는 비하르 주의 낙후된 지역에 있는 유적지 근처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800년이 지난 지금 대학을 재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노벨상 수상자이자 나란다멘토그룹(NMG)의 회장 아마르티야 센이 말했다.

2006년 싱가포르를 공식 방문한 인도 수상 압달 카람이 아시아 지식 창조의 산실로서 나란다를 되살리려 생각하고, 이에 싱가포르가 심포지엄을 열어 한국·일본·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나란다대학은 주로 인문학에서 시작해 어학과 문학, 종교와 철학, 불교

학뿐만 아니라 정보기술과학, 경영, 생태와 환경학까지 포함할 것이다. 나란다대학이 불교대학이었지만 다양한 종교 해석에 열려 있었다고 센이 말했다. 아직은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NMG가 자연과학 학부를 개설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날의 전쟁과 문명 충돌 속에서 나란다는 본래 소명인 지구의 종교적 화합에 헌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식과 학문 분야에서 아시아의 신념을 고양하며, 아시아 국가들을 서로 가깝게 모으게 될 것이다.



NEWS 4 **정신적 스승, 위트와 유머로 대중을 사로잡다** - newstraitstimes [2011.03.03]

**말레이시아, 조호 바루** - 700명이 아잔브람스님(본명 아잔 브라흐마밤소 마하테라,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의 저자의 설법을 들으러 조호바루 블루웨이브 호텔에 모였다. 대중은 유머와 위트가 섞인 놀라운 통찰과 지혜의 선물에 설법시간 내내 웃음을 터뜨렸다. 브람스님이 쏟아낸 재미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사냥을 좋아했던 한 왕에 관한 것이다.

어느 날 왕이 사냥여행에서 손가락을 다쳤고, 수행 중이던 의사가 이를 치료했다. 불행히도 상처가 심해져서 왕은 손가락을 잘라내야만 했다. 화가 치민 왕은 의사를 감옥에 넣었다. 왕은 다시 사냥에 나섰고 수행원들과 떨어져 있을 때 원주민들에게 잡혀 신에게 제물이 되었다. 그러나 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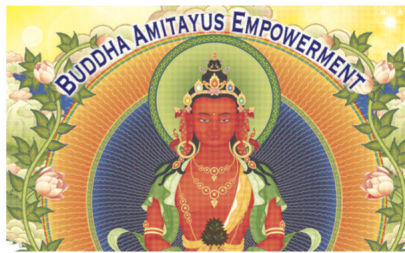
손가락이 9개뿐임을 발견하고는 제물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왕을 놓아주었다. 손가락을 잃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왕은 생각했고, 분노는 곧 감사로 바뀌었다. 의사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의사도 또한 감옥에 있었던 것에 감사했다. 만약 왕이 이번 사냥에 같이 가자고 했다면 자신도 왕과 함께 잡혔을 것이고, 손가락이 다 있는 자신이 제물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아잔브람스님은 삶에 어떤 일이 닥쳐도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바라보자고 결론지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상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누가 알겠는가?" 라고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행한 일이 결국에는 축복이 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1951년 영국 런던 출신의 아잔브람스님이 말했다. 그는 현재 호주 서쪽 서펀틴에 있는 보디나나사의 주지이며 서호주불교회의 정신적 지도자이다. 케임브리지대학을 졸업하고 1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23살에 방콕에서 계를 받았다.

불교문화와 불교 가르침을 보급하고 공부하기 위해 1982년에 설립된 NGO 단체인 '메타 로지 불교센터'가 이번 법문과 기초참선수행을 기획했다. 회장은 이번 행사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이 기대한 것보다 컸다고 말했다. 이 행사에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모나쉬대학의 의과대학 학생들도 참여했다. 행사조직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참선수행의 효과에 대해 알리고 초보수행자들에게 아잔브람스님의 참선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했다.

**NEWS 5** 투시타 카담파선원이 새로 문을 열다  
- vcstar.com [2011.03.06]

**캐나다** - 75명의 불자들이 웨스트레이크 빌리지의 새로 지은 투시타 카담파 불교센터 선방에 모여 개원을 앞두고 참선을 했다. 참가자가 많아서 30명은 돌아가야 했다. 지도자인 레베카 고티어는 "새로운 시설이 예전보다 두 배의 공간이어서 수업, 강연, 집중수행 등을 더 많이 진행할 수 있다"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센터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내면의 행복을 키우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이고도 힘차게 제압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18년 경력의 고티어가 말했다. 수강생들은 어려움에 더 효과적이고 건설적으로 대처하며, 인간 관계의 개선으로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마이클 맥켈러는 몇 주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불교를 발견하게 되었다. "정말 흥미로운 걸, 우리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광고를 보았고 오늘 아침 참선수업도 듣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린다 로버츠는 최근 PBS방송에서 불교특집 프로그램을 보고 흥미를 느껴 센터에 왔다고 했다. 참선에 대해 좀 읽거나 잠깐 해볼 때마다 무엇인가 마음에 울림이 있었고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광고를 보고 생각했다. '정말, 웨스트 마을 바로 여기에?' 그리면서 센터에 들어서는데 느낌이 산뜻했다. 참선은 내



가 탐구해 나갈 그 무엇으로 생각한다고 그녀가 말했다. 카마리오에 거주하는 짐 라딘(46)은 2년 동안 이 선방을 다녔는데 불교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과는 달리 문제가 아닌 배움의 경계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일요일 수업 중 하나는 세계평화에 대한 기도이다. 목적은 우리들 마다 내면의 평화를 길러, 세계평화의 성취를 돕는 것이라고 고티어가 말했다.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도 행동한다.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길 원한다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일요일 어린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법, 타인을 존중하고 함께 나누며, 산만함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법을 배운다. 월·수·목요일에는 불교 기초교리에 대한 수업이 있다. 4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한 명은 전적으로 청소년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다.

**NEWS 6** 가르마파, 설법을 준비하다  
- 시피 뉴스 [2011.03.04]

**인도, 다람살라** - 17번째 가르마파가 절에서 외화발견 사건 이후 처음으로 사르나트



에서 설법할 예정이며, 유명한 저자이자 불교 지도자인 밍큐르 스님이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 밍큐르 스님은 가르마파가 사르나트에 가기 전에 잠시 방문하고 있는 보드가야의 터가르사의 주지이다. 스님은 티베트의 종교적 지도자인 가르마파가 명예를 회복한 것에 대해 인도 정부 및 티베트 망명 정부의 달라이 라마와 전 세계 지지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또 가르마파가 중국의 스파이라는 주장에 슬프고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한편 가르마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로서 사르나트 방문은 내 삶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가르마파는 사르나트의 가장 오래된 절의 하나인 트랑구사에서 티베트의 음력설인 로사르를 축하하고, 3월 9일부터 12일까지 바즈라 비드야원에서 설법할 예정이다.

**NEWS 7** 중국불교대표단, 캄보디아 우호친선 방문  
- 불교재선, www.fjnet.com [2011.03.08]

2011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캄보디아 승왕(텡봉스님)의 초청으로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정사스님, 사천성불교협회 부회장 소전스님을 비롯한 16명의 중국불교대표단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우호친선을 다졌다.

대표단은 방문기간 동안 승왕이신 텡봉스님과 노르돔 시하모니 국왕 예망 그리고 종교사무부를 방문하였다. 텡봉스님은 환영사에서 "양국간의 불교계 우호교류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고, 중국에서 개최한 세계불교포럼에 캄보디아 불교계 인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대표단은 승왕스님께 감사를 표하며 "불교를 통해 양국간의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NEWS 8** 참선을 통해서 행복을 찾다, 샤론 살즈버그  
- L.A.타임즈, 노미 모리스 [2011.02.20]

**미국** - 샤론 살즈버그(58세)가 70년대 인도에서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만 해도 구겨진 면 블라우스가 이목을 끌었고 참선을 지도하는 직업이라고 파티에서 밝히면 사람들이 살짝 비켜 지나가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스타벅스에서 인도 차인 짜이를 팔고 있고, 매사추세츠 병원은 단지 8주의 참선으로도 뇌의 회백질 밀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으로 육체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획기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살즈버그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통찰수행원(IMS)의 공동 설립자이며 30여 년 동안 서양인들에게 생활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최근에 출판한 "진정한 행복:참선의 힘"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그녀는 외부적 원인에 기대는 것이 아닌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행복 찾기 28일 수행을 소개했다.

살즈버그가 어렸을 때는 괴롭고 실망스럽기만 했다. 부모님이 4살 때 이혼했고 아버지는 그냥 가출하셨다. 9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 가셨고 그래서 할머니와 살러 갔다.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오시긴 했지만 약물 과다로 병원에 입원했고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지냈다. 그녀는 16살까지 5가지 형태의 실패한 가정에서 살았다고 회

상했다. 대학에서 불교를 접한 후 인도 보드가야에 가서 공부한 계기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인가 노력해보자는 부처님의 초대에 매료되었다. 흔히 그렇듯 그녀의 가족들은 자신의 상처에 대해 서로가 아무 말이 없었고, 마음 밑바닥 두려움으로부터 올라오는 분노와 비난을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참선·정념·자비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차림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선택의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었으며, 책을 통해 이 사실을 나누는데 이르렀다. 살즈버그가 배우고 가르친 것은 '진정한 행복'으로 귀결된다. 마음은 외부환경이 좋을 때에 우리를 우울하게 할 수도 있고, 고난의 시기에도 편안함을 경험토록 하는 힘이 있다. 이라크에서 사지가 절단된 군인들을 치료하는 간호사들에게 참선지도를 하면서, 환자들의 고통은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간호사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곳의 간호사는 슬픔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유연함에 가닿을 줄 아는 이들이었다. 저자는 참선이야말로 이 정신성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라고 말했다.

**NEWS 9** 아잔 마하 부와 스님의 다비식에 수천 명이 모이다  
- 방콕 포스트 [2011.03.03]

**태국, 우돈 타니** - 우돈 타니에 있는 파반 탁사가 매일 밀려오는 불자와 스님들을 공양하고자 세운 1,500개의 임시 공간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 모두가 큰 선지식이었던 아잔 마하 부와 스님의 다비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스님은 1월 30일 세수 98세로 열반했다. 의식은 왕비가 주재할 것이다. 경내에서는 50명의 경찰관이 다비식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다비식장에는 12명이 큰 일산을 들고 흰 꽃으로 장식하여 운구해 갈 것이다. 우돈 타이 방송매체들은 합동으로 임시 뉴스 센터를 세워 4일부터 6일까지 방송하기로 했다. 쿨라본 공주가 아침공양 의식과 저녁 기도에도 참석한다.

다비식은 5일 1시로 정해졌다. 절은 이번 다비식을 위해 276억 바트와 금 45kg를 공양 받았다.

**"새로운 시대, 행동하는 불교...피안사로 오세요!"**  
유니크한 스님 프로필과 콘텐츠 등 흥미진진

'사찰은 웬지 다가가기 어렵다. 불교를 알고 싶고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절에 가보고 싶지만 어느 절에 가야 할지 모르겠다.' 초보불자 또는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난관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이트가 등장해 화제다. '피안사(彼岸寺)'가 바로 그곳.

종파를 넘어 불자는 물론 불자가 아닌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불교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터넷 상의 절이란 의미라고 설명돼 있다. 불교에서 피안은 '사바세계 저쪽에 있는 깨달음의 세계 또는 이승의 번뇌를 해탈하여 열반의 세계에 이룸'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현실의 세계를 넘어 온라인에서 펼쳐지는 세계, 나아가 새로운 시대의 불교라는 부분이 사찰 이름과 잘 어울려 보인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어도 사람이 삶을 사는데 있어 인연과 인간관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다. 온라인이라는 가상세계의 장점을 활용, 피안사는 '불교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스님뿐 아니라 불교에 관계된 사람들을 사진과 간단한 내용으로 모아 놨다. 더불어 최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트위터'를 통해 스님들과 문답을 할 수도 있어 도움이 될 사이트이다. 피안사를 방문해본 한 불교기는 "와~ 이런 사람이 스님이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니크한 프로필의 스님들이 있다"며 "이 사이트를 방문해보면 '불교가 의외로 재미있을지도 몰라!' 라고 모두가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평을 남겼다. www.higan.net



꿈을 이루는 사람들

# 잃어버린 날개를 달아주세요!

사고 피해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불교108울트라마라톤대회



2010년 7월 1차 수술 후 아버지와 함께 한 토안



침터에서 해문(좌), 진오(우) 스님과 함께 한 토안

오는 4월 23일(토) ~ 24일(일) 양일에 걸쳐, 불교108울트라마라톤조직위원회 주최로 억울한 사고 피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불교108울트라마라톤대회(www.108ultra.co.kr)”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0년 7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왼쪽 뇌를 잘라 낸 피해자 토안(베트남, 27세)에게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고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후원금을 모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마라톤대회는 진오(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 구미 대문사 주지) · 해문(대구 상락선원 주지) 스님과 함께 조계사 일주문을 출발(4/23 · 토 · 18:00), 보광사를 반환점으로 조계사(4/24 · 일 · 08:00)에 도착하는 코스로 진행된다. 참가자 1인당 1km 마다 100원씩 후원하게 되며 108km를 완주할 시 10,800원을 보시할 수 있다.

불교108울트라마라톤조직위원회는 마라톤대회와 더불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모금(www.maha108.net)을 통해 총 108명의 후원자를 모집하여 토안에게 1,166,400원의 기부금을 후원할 계획에 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 054-443-0755  
후원계좌\_농협 301-0078-2689-01

## 고단하고 가슴 아픈 이주노동자의 삶

지난 3월 17일(목)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섬유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였던 아프 사라만씨가 사망했다.

그는 2003년 12월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와 1년 정도 일한 후 출국하였다가, 2005년에 다시 일하러 왔다.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가족을 위해 고국을 떠나 먼 땅으로의 이주노동을 결심했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을 위한 가장의 힘든 결정은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끝나고 말았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아들을 단 한번도 만나지 못한 채 타국에서 영영 눈을 감고 말았기 때문이다.

사고 경위 확인과 사건 대응을 위해 김포 마하 이주민센터 조종술 국장과 찾아간 사고현장에는 화재진압이 끝난 후라 불에 탄 벽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당시 사고

내용을 회사 작업반장에게서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역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이며, 고인과 5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다. “형(아프 사라만)은 야간작업을 끝내고 오전 9시쯤 잠자러 들어갔다. 그런데 좀 있다 10시 반경에 불이 났다. 늦게 잠자러 간 사람들은 다행히 피신을 했는데, 형은 깊은 잠에 들어서인지 못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덧붙여 “형과 나는 5월에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형은 가족들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곧잘 했다. 여기 기숙사가 너무 불편했던 나는 월 20만원을 주고 방을 구해 있지만, 형은 가족들을 위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며 기숙사에 있길 희망했다.”며, 자신도 곧 이주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다.

김포 마하 이주민센터 조종술 사무장은 방글라데시 공동체와 함께, 사망 이주노동자의 사건 수습을 위해 유족을 초청하고 산재처리를 하는 등 바빠 움직이고 있다. 또한 고인을 위한 ‘추도법회’를 4월 3일 동두천에 있는 용수사에서 봉행하고, 고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김포 마하 이주민센터 031-985-0654  
후원계좌\_농협 351-0273-4758-43



타버린 기숙사 건물

## 광주 해뜨는 다문화가족 복지센터 -

### “너무 좋고 가슴이 막 뛰어요.스님! 또 하면 안돼요?”

3월 2일(수), 광주전법단(단장 도제스님) 주최로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다문화가족 후원을 위한 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다문화 가족 자녀 16명으로 구성된 ‘해뜨는 무용단’의 합창 및 무용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공연이 끝난 뒤 객석으로부터 터져 나온 박수와 앙코르 요청에 ‘해뜨는 무용단’의 단원 중 한 아이는 “연습이 너무 힘들어 늘 도망 다니기만 했는데 막상 무대에 올라와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박수를 받고 나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더욱 열심히 연습해서 이번보다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라며 인터뷰 도중 옆에 계신 동원스님(해뜨는 다문화가족 복지센터 총무)께 “스님! 또 하면 안돼요?”라며 응석 아닌 응석으로 주위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하였다. 이번 공연의 총괄 진행을 맡으신 동원스님은 “무대에 올라 즐겁게 공연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관객들이 큰 감동을 선사 받았습니니다. 쉽지 않은 율동 연습을 함께 해 준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라며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광주 다문화가족 후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 해뜨는 다문화가족 복지센터 062-222-4446

## 광주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

### “와! 주인공이 눈앞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듯 한 모습이었어요!”

지난 2월 26일(토), 광주 CGV에서 “우정과 지혜의 꾸러기 2차 기금”을 통한 다문화가정 어린이 영화(‘라퐁젤’) 관람 행사가 진행되었다. 초등학교생이라고만 밝힌 ‘우정과 지혜’는 용돈을 저축하여 모은 돈을 지난해(2010년)부터 광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기부하고 있다. 이 기부금을 통해 지난 2010년 10월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 총 25명의 영화관람과 저녁식사가 이루어진데 이어 이번에 총 11명의 다문화가정이 혜택을 받았다. 영화 관람을 마친 아이들은 “만화 주인공들이 눈 앞에 있는 듯 가까이 느껴져 신기하기만 했다.”며 처음 보는 3D 영화 감상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어린이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어른이 보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신나고 재밌었다.”고 참여한 학부모 중 한명은 즐거움 마음을 전달해 왔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광주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는 적은 용돈이지만 아끼고 모아, 사랑으로 전달하고 있는 “우정과 지혜”의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광주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062-960-3395

## <차별을 넘어 다양함으로> 외국인? 이주민?

우리는 흔히 외국인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외국인이라는 말은 국기를 기준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 차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전에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은 이주노동자, 이주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주민이라는 의미는 ‘이주를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 사람의 국가·인종·민족 등의 내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단지 이주를 하였는

가에 대한 내용만을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서류의 등록 여부에 대한 부분도 단지 그 사실만을 말해야 하며, 과장된 어감을 가진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로 아래와 같이 순화된 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하 이주민지원단체 협의회 02-720-7095

기존 단어	권장 단어 (UN기준)
외국인	▶ 이주민
외국인근로자	▶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	▶ 미등록 체류자

4월 행사	단체	날짜	행사
	김포 마하 이주민센터	4월 3일	이주노동자 추도법회
	태국법회	4월 10일	태국 송쿠란 축제 참가
	캄보디아 불교센터	4월 17일	캄보디아 설날센터 (경기)
	꿈을 이루는 사람들	4월 17일	캄보디아 설날행사 (구미)
	재한 줌머인 연대	4월 17일	방글라데시 보이사비축제
	불교108울트라마라톤조직위	4월 23 ~ 24일	불교108울트라마라톤대회